

<2021 국가직 9급 회계원리 (관세직) 나책형 해설-김용재 CPA>

1. 총평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20년도 국가직 시험 대비 평이했습니다. 공무원 수험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가 보통 1문제, 많으면 2문제까지 출제되는데 올해는 모든 문제가 일반적인 공무원 수험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간단한 계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난도 문제로는 3번(대손상각비), 16번(재무비율), 19번(대손&투자부동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19번은 대손과 투자부동산이 한 문제에 같이 등장한 문제였기 때문에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1. ①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정보의 공급자이지만, 동시에 관리회계의 정보 이용자이다. 따라서 수요자이기도 하다.

2. ②

X1.7.1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월할 상각을 주의하자. 연수합계법은 적용하므로 상각률이 4/10, 3/10, 2/10, 1/10이 되는데 X4년에는 2/10이 6개월, 1/10이 6개월 적용된다. 따라서 X4년도 감가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200,000 - 200,000) * (2/10 * 6/12 + 1/10 * 6/12) = 150,000$$

3. ①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기초		500,000	50,000
매출		800,000	
회수		(600,000)	
대손 확정		①(250,000)	①(250,000)
설정	③250,000		②250,000
기말		450,000	50,000

① 대손 확정: 기말 매출채권이 450,000인데, 기초 매출채권에서 매출액과 회수액을 반영하면 기말 매출채권이 700,00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이 250,000이 된다.

② 대손충당금 설정: 기말 대손충당금이 50,000인데, 기초 대손충당금에서 대손 확정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상계액을 차감하면 기말 대손충당금이 (200,00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250,000을 추가로 설정한다.

③ 대손충당금을 250,000 설정하였으므로 당기에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250,000이다.

참고>회계처리

매출채권	800,000	매출액	800,000
현금	600,000	매출채권	600,000
대손충당금	250,000	매출채권	250,000
대손상각비	250,000	대손충당금	250,000

4. ④

- ① 사채발행비가 발생하면 순현금유입액이 감소하여 유효이자율은 상승한다. (O)
- ②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발행한다. (O)
- ③ 할증발행 시 사채의 장부금액은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 액면금액이 된다. (O)
- ④ 할인발행, 할증발행 모두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은 점차 증가한다. (X)

5. ②

새로운 사옥 설계비	2,000
땅 굴착비용	500
건설자재 구입비용	4,000
차입원가 자본화액	150
건설 근로자 인건비	1,700
계	8,350

토지의 구입가격, 부대비용: 일괄취득하여 토지만 사용하는 상황이므로 공정가치 비율대로 창고에 취득원가를 안분하지 않고 전부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창고 철거비용: 건물을 바로 철거하는 상황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6. ③

X0		X1		X2
1,000,000	→	900,000	→	1,050,000
			(+)100,000 PL	
	(-)100,000 PL		⊕50,000 OCI	

X1년에 인식한 재평가손실(PL) 100,000이 있으므로 100,000은 재평가이익(PL)으로 인식하고, 초과분 50,000만 재평가잉여금(OCI)으로 인식한다.

7. ①

요구사항을 잘 읽었어야 하는 문제이다. 문제에서는 '자산표 작성을 통해 발견되는 오류'를 물었다.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답이다. 따라서 어떤 회계처리인지 살펴볼 필요 없이,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8. ③

대차의 위치만 정확하게 배치해서 시산표를 그리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매출원가	100,000	매출	120,000
급여	50,000	미지급비용	80,000
선급비용	70,000	자본금	40,000
현금	130,000	매입채무	170,000
재고자산	200,000	미지급금	50,000
미수수익	50,000	이익잉여금	140,000
계	600,000	계	600,000

9. ③

화재, 도난 등의 재난이 발생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기말 재고자산’을 구하는 것이다. 문제에서 기초 재고액과 매입액을 제시했으므로, 매출원가만 계산하면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할 수 있다.

매출원가: $1,200,000 \times (1 - 20\%) = 960,000$

홍수 전 기말 재고자산: $250,000 + 1,300,000 - 960,000 = 590,000$

홍수로 소실된 상품원가: $590,000 - 150,000 = 440,000$

10. ①

① 자본조정은 대부분 자본의 차감 계정이지만, 미교부주식배당금과 주식선택권은 자본의 가산 계정이다. ‘자본의 차감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이다.

② 상환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부채로 분류한다. (O)

11. ③

공무원 수험생들은 고급회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꽤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③번에 ‘반드시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더라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기업은 회계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실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역합병’을 하는 경우 보고기업과 법적 실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역합병은 공무원 수험범위를 뛰어넘는 내용이므로 역합병이 무엇인지는 궁금해하지 말자.

12. ③

원장에는 계정의 증감과 함께 적요를 적는다. 현금(자산) 원장이므로 차변에 기록된 내용은 증가 내역을, 대변에 기록된 내용은 감소 내역을 의미한다. 1/18에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현금을 수취한 것이다.

13. ②

현금흐름	=	NI	-	△자산	+	△부채
(17,500)	=	(20,000) (매출원가)		500 (재고자산)		2,000 (매입채무)

매출액-20,000=5,000 (매출총이익)

→매출액=25,000

14. ④

회사 회계처리				기말 수정분개			
현금	2,400	임대수익	2,400	임대수익	1,400	선수수익	1,400
-회계처리 없음-				미수수익	100	이자수익	100
보험료	2,400	현금	2,400	선급비용	2,200	보험료	2,200

(1) 임대수익

1년 치 임대료를 전부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7개월 치 임대료는 선수수익으로 대체한다.

(2) 이자수익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3개월 치 미수이자(100=10,000*4%*3/12)를 계상한다.

(3) 보험료비용

2년 치 보험료를 전부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22개월 치 보험료는 선급비용으로 대체한다.

① 자산: 2,300 증가 (미수이자 & 선급비용)

② 비용: 2,200 감소 (보험료)

③ 수익: 1,300 감소 (임대수익 & 이자수익)

④ 당기순이익: 900 증가 (O)

15. ②

① 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한다. (O)

②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이 IFRS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장기업 및 금융기업 등만 IFRS를 적용하며, 나머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X)

③ IFRS 도입으로 규칙(rule) 중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규칙 중심의 기준은 세부적인 지침까지 타이트하게 간섭하는 기준이고, 원칙 중심의 기준은 대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자율성을 주는 기준이다. IFRS는 상장기업, 금융기업 등 어느 정도 가장 능력을 갖춘 기업이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원칙 중심의 기준이다. (O)

④ IFRS는 공정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O)

16. ③

1.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360/\text{재고자산회전율}=36\text{일}$

→재고자산회전율=10회

2.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평균 재고자산=10회

(1) 기말 재고자산: 300,0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4

당좌비율=(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1

→재고자산/유동부채=3, 기말 재고자산=100,000*3=300,000

문제에서 'X1년 말' 유동부채, 유동비율, 당좌비율을 제시했으므로 비율 계산 시 전부 기말 금액을 사용한다.

(2) 평균 재고자산: $(100,000+300,000)/2=200,000$

(3) 매출원가: $200,000*10\text{회}=2,000,000$

3. 매출총이익: $3,000,000-2,000,000=1,000,000$

17. ④

① 취득금액: 11,000 (X)

② FVOCI 선택 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을 전부 OCI로 인식한다. (X)

③, ④ FVOCI 선택 금융자산은 처분가액으로 평가 후 처분하므로, 처분 시에도 '평가'손익을 OCI로 인식하며, '처분'손익은 0이다.

18. ①

매출원가: $100,000+200,000-130,000(\text{올바른 기말재고})=170,000$

실사 기말 재고	110,000
시송품	20,000
올바른 기말 재고	130,000

(1) 도착지 인도조건 매입 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재고가 아니다. 회사의 실사 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정할 것은 없다.

(2) 시송품: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50%는 회사의 재고에 포함 시킨다.

(3) 담보제공상품: 아직 저당권이 행사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재고이다. 실사 시 포함시켰으므로 조정할 것은 없다.

19. ③

1. 대손상각비: 120,000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기초			200,000
대손 확정		(70,000)	(70,000)
설정	③120,000		②120,000
기말			①250,000

① 기대신용손실액이 250,000이므로 기말 대손충당금은 250,000이다.

② 기초 대손충당금에서 대손 확정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을 70,000 상계하면 잔액은 130,000이다. 따라서 **120,000**을 추가로 설정해야 기말 대손충당금이 250,000이 된다.

③ 대손상각비는 120,000이다.

2. 투자부동산으로 인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50,000 증가 (평가이익)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평가만 한다.

평가이익: $250,000 - 200,000 = 50,000$ (PL)

3.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1) X1년 당기순이익: $150,000 - 120,000(\text{대손상각비}) + 50,000(\text{평가이익}) = \mathbf{80,000}$

(2) X1년 말 이익잉여금: $30,000(\text{기초 이익}) + 80,000(\text{X1년 NI}) = \mathbf{110,000}$

20. ②

	유효이자(10%)	액면이자(8%)	상각액	장부금액
X0				9,503
X1	950	800	150	9,653

사채상환손익: $9,653 - 9,800 = \mathbf{(-)147}$ 손실